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4) : 717~729, 2015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6(4) : 717~729, 2015
<http://dx.doi.org/10.7856/kjcls.2015.26.4.717>

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에 대한 공평인지와 불공평인지 집단별 가사노동분담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정 주 원 · 조 소 연^{1)†}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경주) 사범교육대학 가정교육과¹⁾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Work Sharing and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U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Joowon Jung · So Yeon Cho^{1)†}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oungju, Korea¹⁾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the differences in household work sharing and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u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by gender. The study also examines the effects of household work sharing and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u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The sample consisted of 270 males and 349 females in their twenties to fifties in dual-earner households. Data analysis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usehold work sharing by gender.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u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between males and female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u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These results verify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u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by gender in dual-earner households and demonstrate differential effects of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u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Key words: dual-earner household, household work sharing, 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perception

I. 서론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9.4%에서 2014년 51.3%로 증가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2.9%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5). 맞벌이에 대한 선호도

접수일: 2015년 9월 30일 심사일: 2015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10일

[†]Corresponding Author: So Yeon Cho Tel: +82-2-2260-8750 E-mail: soyeon@dongguk.edu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조사에서도 '가정일에 관계없이 여성이 계속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2013년 45.3%로, 1998년 28.7%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48.0%는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오며 가사노동분담은 맞벌이 가구 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부부가 직접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유급가사조력자의 활용이 임금을 상승으로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은 부부의 역할문제로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Yoo et al., 2011). 따라서 맞벌이 가구에서 부부가 함께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의 주요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과중되어 있으며, 실제적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Heo 2008). 생활시간 조사에서 맞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은 41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3시간 13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은 46분으로 나타나 맞벌이 남편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가사분담 만족도에서는 여성이 29.9%로 남성(35.4%)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23.4%로 남성(8.2%)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이에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참여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가사노동분담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객관적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과 같은 가족체계 요인, 그리고 임금노동시간, 임금소득과 같은 직장관련 요인이 주를 이루어왔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참여와의 관계에서 정적·부적인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Barnett & Baruch 1987; Im & Cho 1996; Coltrane 2000; Son 2005). 남성의 경우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자신의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직업, 임금노동시간이 적을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ersch & Strarron 1997; Doo & Yoo 2000; Cai & Lee 2004; Noonan et al., 2007; Lee & Kim 2008; Heo 2008). 이외 성 역할태도를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요인으로 파악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성 역할이 강할수록 여성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반면(Greenstein 1996; Im & Cho 1996; Heo 2008; Yoo 2010), 성 역할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Yoo & Doo 1999).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가사노동분담의 불균형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나타나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공평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맞벌이의 증가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동반자적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절대적 개념인 객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개념인 공평성의 적용이 가정생활을 파악함에 있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VanYperen & Buunk 1990). 가정생활에서의 공평성은 남편 또는 부인이 자신과 배우자가 가정생활 전반 및 각 영역에 기여한 바와 그로부터 얻은 결과가 비슷하다고 인지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Kang 2000). 이러한 공평성 정도는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가정 내 역할분담 그 자체보다는 상황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것으로 파악된다(Thompson 1991). 가정 내 역할분담에 따른 공평성은 가사노동·자녀양육·생활수준 기여라는 영역으로 나뉘지는데(Longmore 1997), 여기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같은 영역으로 간주하여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란 가사 및 육아활동 등 전반적인 가사노동의 분담을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하는 주관적 인지인 것이다(Moon et al., 1997; Ki & Lee 2003).

지금까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공평성에 대한 국내연구는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사노동 공평

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분석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다(Ryu 1997; Cha 1998; Ki & Lee 2003; Lee & Kim 2008). 그러나 가사노동 공평성을 다루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 불균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요인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남성과 여성이 인지하는 주관적 가사노동 공평성을 기준으로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인지 집단별로 분류하고 남녀별 가사노동분담률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인지 집단별로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분담 불균형에 대한 남녀의 주관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를 조정해나가며 일-가정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 과제에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보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가족복지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사회적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은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인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인지 집단별로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는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수

행되고 있는 가사노동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관하여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지로 파악될 수 있다(Thompson 1991; Moon et al. 1997). 즉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는 가사노동시간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사노동의 공평성을 인지하기보다는 부부간에 전반적인 가사노동 분담의 공평 정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인지인 것이다(Moon et al. 1997; Ki & Lee 2003).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공평 혹은 불공평 정도의 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Thompson(1991)은 산출가치와 비교참조, 정당화로 보았다. 산출가치는 부부의 가사노동 공평성을 인지하는데, 단순히 산출량의 측정을 기준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의 가치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 과업, 대인적 가치, 권력 등 부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보상받을 경우 가사노동분담률과 관계없이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참조는 가사노동 공평성을 인지할 때 주변의 준거 대상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사노동공평성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가사노동 공평성을 평가할 때, 준거집단보다 자신의 가사노동수준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따라 자신의 가사노동 공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정당화는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적게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찾을 경우 가사노동의 공평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사노동을 적게 수행하는 정당화의 근거로 가사노동의 무경험, 피로, 직업노동 등을 정당화로 사용되지만, 아내의 경우 이러한 근거가 정당화로써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내는 가사노동을 불공평하다고 인지하지만, 남편은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You 1997). Baxter (2000)는 가사노동시간의 크기보다는 특정 영역의 가사노동에 대한 배우자의 관심이 가사노동의 공평성 인지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의 객관적 가사노동의 시간이 월등히 높지만, 이들의 가사노동의 공평 인지 수준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영역에 따라 가사노동의 공평성 인지 수준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통적 성 역할에서 주로 여성이 수행하던 식사준비, 청소, 설거지 등의 가사노동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여성은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Sanchez & Kabe(1996)는 가사노동이 강압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사노동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Lee & Kim(2008)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참여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적인 가사노동에 참여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배우자는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충분히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역시 가사노동의 공평성 인지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Ki & Lee(2003)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부인의 취업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부인에 대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로 받아들여지며, 부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공평성은 가사노동의 객관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가사노동분담률과 다르게 인지되고 있다. 한국의 가정에서 맞벌이의 증가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동반자적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절대적 개념인 객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개념인 공평성의 적용이 가정생활을 파악함에 있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VanYperen & Buunk 1990).

2.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의 요구충족을 위한 무보수 활동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Joung 2005). 즉,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에서 가족구성원 공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무보수로 수행되는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Moon 1996; Chae 2004; Joung 2005).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와 가족구성원 돌보기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Cha 1998). 가정관리 영역은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매, 가정경영, 기타 가정관리영역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정관리의 영역이 포함된다. 가족

구성원 돌보기 영역은 자녀,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등의 돌보기 등 가족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한 가정관리의 영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을 Cha(1998)의 가사노동영역을 근거로 분류하여 1주일간의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가사노동분담률을 측정하기 위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본인과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Lee & Kim 2008).

2014년 통계청의 사회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은 41분인 반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3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이 82.48%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요 책임이 여성에게 있으며, 남성의 참여가 미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Cho & Yoon 2014).

이에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사노동분담에 영향 요인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개인상황적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성 역할 등과 경제상황적 요인인 임금노동시간, 임금소득 및 경제적 기여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Lee(1991)와 Doo & Yoo(1999)는 부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분담이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반면, You & Choi(2002)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Komo(1994)는 교육수준이 상대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교육수준이 낮은 배우자는 상대적 자원을 덜 가진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더 많은 가사노동을 통해 서로의 기여 결과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을 기회비용의 측면으로도 바라보았는데, 높은 교육수준을 갖은 경우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가사노동 분담률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Ryu(1997) & Cha(1998)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가사노동의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Doo & Yoo(2000)는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Cha(1998)는 자녀수가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Yoo(2010), Sanchez & Kane(1996)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지닌

여성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기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은 남편의 낮은 가사노동참여와 본인의 높은 가사노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공평성을 높게 인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양성 평등한 성 역할을 갖은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참여에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실제 가사노동에서도 많은 참여가 행해진다고 보고하였다(Choi 1995).

부부의 임금노동시간은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이 임금노동시간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게 되며, 남성이 가사노동에 적게 참여하더라도 배우자는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하다고 인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Lee & Lee 1994). 또한 임금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08; Heo 2008).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임금노동시간의 양이 가사노동시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xter 2000; Ki & Lee 2003). Lenon & Rosenfield(1994)는 경제적 기여수준이 가사노동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기여수준이 높은 경우 가사노동참여를 적게 해도 용인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참여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인소득이 적은 경우 배우자에 비해 보다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chez & Kane 1996).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자녀 유무, 성 역할태도인 개인상황적 측면과 본인과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 개인소득, 경제적 기여인 경제상황적 측면으로 바라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50대 이하의 맞벌이를 하는 기혼 남성과 여성으로 부

부가 아닌 개별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18-27일까지 온라인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모의표집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부실응답을 제외하고 남성 270명, 여성 349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는 가사노동을 본인과 배우자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지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가사노동 공평성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Hong(1996)의 연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총 2문항으로 가사활동과 육아활동관련 노동의 분담 정도를 물었으며, '내가 대부분 분담한다' 1점 에서 '배우자가 대부분 분담한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0.81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응답에 따라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인지 집단을 분류하였다.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응답의 기준은 3점으로, 3점은 가사노동 공평집단으로 보았으며, 3점 미만은 본인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불공평집단으로, 3점을 초과한 집단은 배우자가 더 많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불공평집단으로 보았다.

2) 가사노동분담률

본 연구에서 가사노동참여율을 측정하기 위해 가사노동시간과 배우자 가사노동시간을 활용하였다.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Cha(1998)의 가사노동시간 조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평일과 주말(토, 일요일) 양일간의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매, 가정경영, 양육 등 11개 문항에 사용한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1주간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가사노동시간 \times 5+주말가사노동시간 \times 2일'로 계산하였다. 가사노동분담률은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본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의 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을 측정하

였다. 본인과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동일한 시간만큼 수행한다면 50이 되며, 본인이 가사노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 0, 본인이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면 100의 값을 갖는다.

3) 개인상황적 변인

개인특성적 변인은 선행연구(Cai & Lee 2004; Lee & Kim 2008)에서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상황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 상황적 변인은 구체적으로 나이, 교육수준, 자녀 유무, 성 역할태도 변수로 구성하였다. 나이는 응답자의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정도로 대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대학졸업보다 낮은 학업을 이수한 경우 '대졸미만'으로, 대학 2년제 혹은 4년제의 대학을 졸업하면 '대졸', 대학졸업 이상의 학업을 이수한 경우 '대졸초과'로 정의하였다. 자녀 유무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로 물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있음' 자녀가 없으면 '자녀 없음'으로 측정하였다. 성 역할태도 변수는 Hong(1996)의 연구에서 활용한 성 역할태도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여성은 직업이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되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지,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부인은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한 성 역할을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 역할인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는 0.72로 나타났다.

4) 경제상황적 변인

경제상황적 변인은 선행연구(Lee & Kim 2008; Joo 2012)를 통해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적 변인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제상황적 변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 개인소득, 경제적 기여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임금노동시간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1주일간의 근무시간을 시간 단위로 물어 측정하였다. 개인소득은 작년 1년간 자신이 평균 월 소득은 얼마인지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기여는 가계소득과 자산형성에 기여 정도로 총 2문항으로 물었으며, '내가 대부분 기여한다' 1점에서 '배우자가 대부분 기여한다'의 5점으로 측정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Male	Female	Variables	Male	Female	
	(N=270)	(N=349)		(N=270)	(N=349)	
	N(%)	N(%)		N(%)	N(%)	
Age	≤30s	86(31.85)	Gender role	Traditional	68(25.18)	74(21.20)
	=40s	160(59.26)		Middle	104(38.52)	138(39.54)
	≥50s	24(8.89)		Modern	98(36.30)	137(39.26)
	M(SD)	42.81(6.84)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s	64(22.96)	Income level (Unit : 10,000Won)	<100	2(0.74)	56(16.01)
	=College graduates	154(57.04)		≥100- <200	32(11.85)	162(46.42)
	>College graduates	54(20.00)		≥200- <300	84(31.11)	76(21.78)
				≥300- <400	64(23.70)	40(11.46)
Children	No	48(17.78)	≥400- <500	40(14.81)	67(2.01)	
	Yes	222 (82.22)	≥600	48(17.78)	8(2.29)	
Paid work hours (week)	M(SD)	39.92(26.43)	Spouse's paid work hours	M(SD)	27.19(27.31)	42.74(24.56)

Table 2.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Variables	Male		Female		t-test
	M(SD)	N	M(SD)	N	
Household work sharing (%) [*]	26.11(1.79)	270	75.64(2.07)	349	-18.12 ^{***}

***p<.001

* Household work sharing=Own household work sharing/(Own household work sharing+Spouse's household work sharing)×100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적 기여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0.76으로 나타났다. 응답의 기준은 3점으로, 3점은 경제적 기여 중등집단으로 보았으며, 3점 미만은 본인이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는 집단으로, 3점을 초과한 집단은 배우자가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는 집단으로 보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들은 STATA 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남성과 여성 간의 가사노동분담률의 차이와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인지에 따른 남성과 여성간의 가사노동분담률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집단별 가사노동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의 차이

맞벌이 가구의 남성과 여성에 따른 가사노동분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은 26.11%였으며,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은 75.64%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 이상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취업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연구를 한 Lee & Kim(2008)의 연구에서 남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이 18.3%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남성의 가사노동부담률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가사노동분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인지 집단별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 차이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 집단별로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 집단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은 가사노동분담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본인이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한다고 인지하는 불공평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이 각각 28.80%, 79.09%로 나타나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한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도 남성(29.55%)에 비해 여성(77.46%)의 가사노동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한다고 인지하는 불공평 집단에서도 역시 남성(20.25%)에 비해 여성(73.14%)의 가사노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인지 집단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i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Variables	Household work sharing						t-value
	Male			Female			
	M	(SD)	N	M	(SD)	N	
Inequity(I'm very)	28.80	(25.35)	71	79.09	(23.68)	187	-17.32***
Equity	29.55	(19.39)	76	77.46	(21.19)	83	-17.65***
Inequity(Spouse's very)	20.25	(18.07)	123	73.14	(24.02)	79	-20.56***

***p<.001

3.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인지 집단별 가사노동분담률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인지 집단별 가사노동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이 모두 0.6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은 2.2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맞벌이 가구 남성의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 인지집단별로 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4). 먼저 불공평 인지집단 중 본인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남성의 집단에서는 본인이 경제적 기여를 더 많이 한다고 인지하는

Table 4. Differential effects of household work sharing and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i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for males

Variables	Male										
	Inequity (I'm very)			Equity			Inequity (Spouse's very)				
	B	SE	β	B	SE	β	B	SE	β		
Age	.37	.25	.21	-.23	.18	-.19	-.10	.13	-.10		
Individual situational	Education level(<college graduate)	10.99	6.55	.21	8.16	4.92	.20	-4.68	3.70	-.16	
	>College graduate	3.45	6.54	.07	2.16	5.09	.06	3.24	3.64	.10	
Children(no)	Yes	-.57	5.37	-.01	-3.38	5.03	-.08	3.92	3.64	.12	
Gender role		1.13	2.65	.04	5.24	1.83	.29**	-.15	1.56	-.01	
Economic status	Own paid work hours	-.25	.14	-.26	.06	.12	.09	-.34	.10	-.60***	
	Spouse's paid work hours	.25	.11	.24*	-.05	.09	-.08	.13	.07	.23*	
	Own income	-2.32	.93	-.32**	-.54	.77	-.11	-2.50	.69	-.59***	
	Economic contribution (equality)	Inequity (I'm very)	-25.97	9.48	-.44**	1.48	4.82	.04	-2.35	4.18	-.07
		Inequity (Spouse's very)	-7.80	10.71	-.11	26.35	7.37	.45**	-5.56	6.30	-.09
Constant		35.13	23.81		25.17	17.27		44.58	13.13		
F-value			4.18***			3.29**			2.69**		
adj.R ²			.24			.07			.24		

*p<.05, **p<.01, ***p<.001

Table 5. Differential effects of household work sharing and perceptions of equitable and inequitable household work sharing in dual-earner households for females

Variables			Female								
			Inequity (I'm very)			Equity			Inequity (Spouse's very)		
			B	SE	β	B	SE	β	B	SE	β
Individual situational	Age		.56	.17	.40**	.05	.22	.03	.29	.21	.18
	Education level(<college graduate) >College graduate	=College graduate	- 3.81	3.99	-.11	7.21	5.43	.15	1.24	5.90	.03
		>College graduate	- 9.85	5.02	-.24	1.85	6.43	.04	.58	6.13	.01
	Children(no)	Yes	11.56	3.42	.32**	- 1.92	4.63	-.04	3.82	4.74	.09
Gender role		- 2.04	1.43	-.12	3.42	1.93	.15	- .42	2.05	-.02	
Economic status	Own paid work hours			.11	-.29	.02	.13	.03	-.24	.13	-.31
	Spouse's paid work hours			.07	.32**	.12	.08	.14	.40	.10	.46***
	Own income		- 1.05	.63	-.26	.43	.83	.08	.08	.75	.02
	Economic contribution (equality)	Inequity (I'm very)	5.81	5.07	.12	1.55	6.83	.02	-25.95	10.22	-.35**
		Inequity (Spouse's very)	11.82	4.32	.33**	10.88	5.54	.24	-12.63	7.56	-.23
Constant		53.57	13.80		50.28	18.73		60.25	18.07		
F-value				5.28***			2.11*			3.83***	
adj.R ²				.25			.07			.24	

*p<.05, **p<.01, ***p<.001

경우($\beta=-0.44$), 개인소득($\beta=-0.32$),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beta=0.24$)이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본인이 가계의 경제적 기여를 덜 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경제적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남성 집단에서는 배우자가 경제적 기여를 더 많이 한다고 인지하는 경우($\beta=0.45$), 성 역할태도($\beta=0.29$)가 가사노동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양성평등한 성 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증가하였다.

끝으로, 가사노동 불공평 인지집단 중 배우자가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한다고 인지하는 남성 집단에서는 개인소득($\beta=-0.59$), 본인의 임금노동시간($\beta=0.60$),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beta=0.23$)이 가사노동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의 임금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은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증가하였다.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 인지집단별로 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5). 먼저 불공평 인지집단 중 본인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여성의 집단에서는 배우자가 경제적 기여를 더 많이 한다고 인지하는 경우($\beta=0.33$), 자녀 유무($\beta=0.32$), 연령($\beta=0.40$),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beta=0.32$)이 가사노동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여성 집단에서는 가사노동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여성 집단에서는 본인이 경제적 기여를 더 많이 한다고 인지하는 집단($\beta=0.35$),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beta=0.46$)이 가사노동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에 비해 본인의 경제적 기여 정도가 적다고 인지할수록,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증가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분담 불균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사노동 공평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맞벌이 가구에서 주관적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 인지 집단별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의 차이와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 인지 집단별로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분담률에 차이를 보였다. 가사노동참여율은 남성은 26.11%, 여성은 75.6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 이상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본인이 많이, 배우자가 많이) 인지 집단별로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 인지 집단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인지 집단별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밝혀졌다. 우선, 남성은 가사노동 공평성을 인지집단의 경우 배우자가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양성평등한 성 역할을 가질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사노동 불공평인지 집단 중 자신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참여한다고 인지하는 집단의 남성의 경우 자신의 경제적 기여수준이 낮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

동분담률이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더 많은 가사노동을 분담한다고 인지하는 남성은 자신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임금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공평성인지 집단의 경우 가사노동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반면, 가사노동 불공평 집단 중 본인이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인지하는 집단의 여성은 배우자가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한다고 인지할수록, 자녀가 있을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여성은 본인의 경제적 기여 정도가 적다고 인지할수록,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증가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은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률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다시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집단별 남녀의 가사노동분담률과 연결하여 보면, 공평, 불공평 인지 집단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명확하게 가사노동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과 남성 본인이 많이 담당한다고 인지하는 집단이 배우자가 많이 담당한다고 인지하는 불공평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거나 3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사노동의 공평성 수준이 객관적으로 여성과 같은 수준의 분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의 수준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하면 상대적으로 공평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이 인지하는 가사노동 공평 집단과 불공평집단에서는 가사노동분담률이 모두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시간의 절반밖에 일하지 않은 남성들조차 자신의 가사노동을 공평하다고 평가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공평하게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도 공평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가사노동에 대해 남성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주요 역할 영역으로 인지되고 있어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가사노동 영역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의 고취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성이 인지하는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 집단별로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적 변인에 의해 가사노동 참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에 있어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소득 기여와 개인소득, 임금노동시간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기여가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남성의 가사노동분담이 가계경제 기여와 임금노동시간이라는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남성이 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기여가 작을수록, 개인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임금노동시간이 줄고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도 배우자의 소득 기여가 높을수록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가사노동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조절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안될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증가가 보편적인 현 상황에서 일·가정의 균형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배려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분담을 가정 내의 사적 역할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정 가능 영역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제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즉 맞벌이 가구의 남성에게도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를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금노동시간이 가사노동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남성에게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탄력적인 휴가 사용, 융통적인 노동시간 운영과 단축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가 서로 가사노동에 대해 조절할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인 소득과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노동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 공평 인지 집단에서는 성 역할태도가 가사노동분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회적 변화에 부합되는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성별 분업이 아닌 역할 공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셋째, 여성이 인지하는 가사노동 공평, 불공평 집단별로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연령과 자녀 유무에 대한 제약 조건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가사노동을 많이 한다고 인지하는 불공평집단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중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는 자녀 돌봄 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또한 자녀 돌봄에 원활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여성 집단에서는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과 소득 기여가 가사노동분담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임금노동시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소득 기여가 많을수록 여성의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를 남성의 경우와 함께 고려해보면, 가정 내 가사노동분담이 노동시간과 상대적 소득 기여 정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정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기반으로 가사노동 역할을 재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될 때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맞벌이 가구의 가정생활 복지를 고려한 노동시장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맞벌이 가구의 가족복지가 향상될수록 기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사회

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은 더 이상 부부공동의 결정사항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제도 결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인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그리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보다 활성화해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주관적 공평성 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요인을 파악하였음에 의의가 있으나 부부 쌍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로 부부에 대한 주관적인 공평성 인지의 기준에 대한 파악과 서로의 관점에 대한 수용과 만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량적인 연구방법보다는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고 내면적인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사노동의 영역을 분류하여 남성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영역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nchez L, Kane EW(1996) Women's and men's constructions of perceptions of housework fairness. *J Family Issues* 17(3), 358-387
- Barnett RC, Brauch G(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 Marriage Family* 49, 29-40
- Baxter J(2000) Gender equality and participation in housework: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 Comparative Family Stud* 28, 220-247
- Cai L, Lee KY(2004)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household work time and life satisfaction. *J Korean Home Manage Assoc* 22(5), 1229-1331
- Cha SR(1998)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on the couples' household work time and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household work. *Family Environment Res* 36(9), 139-152
- Chae OH, Jeong EM(2003) The new generation housewives' performance of housework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Korean J Human Ecol* 12(2), 201-213
- Cho MR, Yoon SK(2014)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 in fathers' family work: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Korean Academy Family Soc Work* 44, 5-30
- Choi SS(1995) Study of the husbands' participation in the household work.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ltrane S(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 Marriage Family* 62, 1208-1233
- Doo KJ, Yoo HS(2000) Marital satisfaction of expanding dual-earner couples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J Family Economic Issues* 4(1), 47-57
- Greenstein TN(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 Marriage Family* 58, 585-595
- Heo SY(2008) Research on time use for housework of women and 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Korean Assoc Women's Stud* 2(3), 199-210
- Herald Economic News(2015) Only 20%,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dual-career couples "Wife led 56%". Available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0000095&md=2015052008151_1_BL [cited 2015 September 20]
- Hersch J, Stratton LS(1997) Housework, fixed effects, and wage of married workers. *J Human Resources* 32, 285-307
- Hong YJ(1997) Effects of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of married couples and the sense of fairness on marital satisfaction.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Im JB, Cho MW(1996) The husband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about 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 *J Korean Home Manage Assoc* 14(4), 47-61
- Joo IH(2012) Research of the determinants for housework of in double income households in Korean. 2012 Sociological Conference for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6, 1099-1113
- Joung SH(2005) Comparative analysis of household work contributions and related factors of the elderly between Korea and Canada. *J Korean Home Manage Assoc* 23(3), 53-62
- Kang KY(2000) Perception of equity: decision-making sty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in dual-career couple. Doctoral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 EK, Lee KY(2003) Wives and husband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 Korean Home Manage Assoc* 21(5), 61-75
- Komo Y (1994)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 Family Issues* 15(3), 348-378
- Lee HA, Lee KY(1994) Husband's time spent structure and husband and wife's perceptions of the family life problem. *J Korean Home Manage Assoc* 12(1), 145-160
- Lee SM, Kim HK(2008) Exploring the working wives & husbands: perceptions of equity on the unequal gender division of domestic work. *Family Cult* 20(1), 1-25

- Lee YM(1991)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practice for housework of Korean husband in the U.S.A. *Stud Living Cult* 6, 129-139
- Lennon MC, Rosenfield S(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the importance of options. *Am J Soc* 100(2), 506-531
- Longmore MA, Demaris A(1997) Perceived inequity and de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c Psychol Quarterly* 60(2), 172-184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5) Best family friendly business information. Available from <http://ffm.mogef.go.kr/business/reviewDescription.do> [cited 2015 September 20]
- Moon SJ(1996) The study of private and public nature in household work. *Family Environment Res* 34(3), 199-210
- Moon SJ, Huh KO, Hong YJ(1997) The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couples and the sense of fairness on marital satisfaction. *Family Environment Res* 35(2), 345-358
- Noonan MC, Estes SB, Glass JL(2007) Do workplace flexibility policies influence time spent in domestic labor?. *J Family Issues* 28(2), 263-288
- Ryu SS(1997) Housewives' perceptions of the equity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Korea.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Son MG(2005) Women's dual burde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aid work time: focusing on dual earner. *Population Assoc Korea* 28(1), 277- 311
- Statistics Korea(2015) 2014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eoul; St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5) The lives of women looking to Statistics. Seoul; Statistics Korea
- Thompson L(1991) Family work: women's sense of fairness. *J Family Issues* 12, 181-196
- VanYperen NW, Buunk BP(1990) A longitudinal study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 Soc Psychol* 20, 287-309
- Yoo GS(2010)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n wives' work-family spillover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earner families. *J Asian Women* 49(1), 41-70
- Yoo GS, Kang SH, Oh AR, Lee JH(2011)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 Assoc* 15(1), 117-136
- Yoo HS, Doo KJ(1999) Participation of household labor of employed wives and husbands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 Assoc* 3(1), 123-134
- You SY, Choi YJ(2002) An analysis of time use of adults and influencing factors on it: paid work, house work, child caring, leisure.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13(3), 53-68